

청주 사뇌사 유물 퇴장(退藏) 시기에 대한 검토

윤용혁 국립공주대학교 명예교수

hyuk@kongju.ac.kr

국문초록

30년 전인 1993년에 발견된 청주 사뇌사 유물은 유물의 양이 방대하고, 고려 청동 기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제작 시기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물의 퇴장 시기에 대해서는 13세기 중반, 13세기 말, 14세기 초 등 여러 견해가 엇갈린 상태에서 견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본고는 논란이 많은 청주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기를 원(元) 카단(哈丹)의 고려 침입이 진행중이었던 1291년 4월의 일로 추정하였다. 카단 군은 고려에 침입하여 1291년 1월에 양평과 원주, 4월 충주를 거쳤으며, 5월 1일 연기현에 출현하였다. 본고에서는 충주에서 연기현(세종시)에 이르는 중도에 이들이 청주를 거치게 되었다는 점을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것이 바로 사뇌사의 폐사 또는 유물의 퇴장 배경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점을 카단 침입이 진행중이던 1291년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무오년, 경신년, 기유년 등 간지(干支)가 적힌 유물의 연대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유년 금고(金鼓) 1249년, 무오년 향로 1258년, 경신년 향완 1260년 등이 그것이다.

주제어 사뇌사, 퇴장 유물, 카단의 침입, 청주, 국립청주박물관

투고일자 2023. 12. 11. | 심사일자 2024. 1. 29. | 게재확정일자 2024. 2. 14.





I. 머리말

청주 사뇌사(思惱寺) 유물은 30년 전인 1993년 10월에 사직동 무심천변, 지금의 용화사 부근에서의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대부분 절에서 사용하던 고려시대 청동 유물로서 그 수량은 처음 415점으로 보고 되었다. 의식구 6점(반자, 범종, 금강령, 경자 등), 공양구 379점(향로, 수병, 주전자, 촛대, 초두, 잔탁, 발우, 합, 접시, 대접, 발 등), 장엄구 3점(금동광배편, 푸탁, 자물쇠), 생활용구 21점(숟가락, 국자, 시루, 맷돌, 철호, 철부), 기타 6점 등이 그것이다.¹ 그리고 이후의 추가 조사를 통하여 그 수량은 430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가운데는 ‘사뇌사(思惱寺)’ 혹은 ‘사내사(思內寺)’라는 절 이름과 함께, 통화 15년(997), 태평 15년(1035), 태화 5년(1205)을 비롯하여 ‘기유’ ‘경신’ ‘무오’ 등의 기년이 적혀 있는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무오년 조(造)’ 혹은 ‘무오 성(成)’으로 기록한 무오년 청동향로는 4점이나 된다. 이것은 이 유물이 원래 사뇌사에서 사용하던 것이며, 한 시기가 아니라 고려 초 이후부터 절에서 사용해오던 용구들이 일시에 묻힌 것임을 말해준다.

이들 유물의 퇴장 시기에 대해서는 몽골군의 침입이 되풀이되었던 13세기, 특히 1250년대의 일이었다는 것이 유력한 추정이기도 하지만,² 14세기까지 늦추어보려는 관점까지 있어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는 유물 자체의 미술사적 편년관, 사뇌사 자료에 기록된 기년, 퇴장이 필요했던 역사적 상황 등 여러 조건이 서로 부합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 작업상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뇌사 유물과 절의 성격을 둘러싼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편년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해소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국립청주박물관의 안내문에는 유물의 편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되어 있지 않고,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는 “기유명 반자와 경신명 향완, 무오명 향로 등은 대체적인 편년이 가능한 고려 후기의 자료”라고 애매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본고는 사뇌사 유물을 둘러싼 그동안의 연대관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유물의 퇴장 시기를 재설정하여 자료 전반에 대한 성격을 정리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II. 청주 사뇌사 유물의 연대관

청주 사뇌사 유물이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퇴장(退藏) 자료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같은 퇴장 자료의 사례는 사뇌사 유물과 같은 시기인 1993년에 출토된 백제 금동대향로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³

대부분 청동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뇌사 유물은, 유물의 제작 수준이 높은 데다 ‘사뇌사’, ‘사내사’ 등 절 이름을 전하는 명문과 함께 연호와 간지 등으로 적힌 연대를 가진 자료가 다수 포함됨으로써, 발견 이후 계속 많은 관심을 모았던 자료이다. 논의를 위하여 통화 15년(997)으로부터 고려 중 후기에 이르기까지 대략 300년에 걸치는 이들 연호 및 간지 자료(9건)를 먼저 표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최응천, 1999, 「사뇌사 유물의 성격과 의의」, 『고려 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pp.149~150.

2 김홍주, 1993, 「청주 사직동 출토 사뇌사명 반자」, 『미술자료』 52, 국립중앙박물관, p.174 참조. 신명희는 유물의 퇴장 시기를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몽골전란기 퇴장을 전제로 사뇌사 간지명 자료의 편년을 정리한 바 있다.

3 최응천, 2019, 「한국 불교 퇴장유물의 성격을 성격과 寧國寺(道峯書院) 출토품의 특징」, 『강좌미술사』 52, pp.173~174. 이 논문에서는 ‘퇴장 유물’에 대하여 “긴박한 상황에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고자 땅 속에 매납한 유물”이라 정의하고 있다(p.173).

표 1 연호 또는 간지가 있는 사뇌사 자료⁴

연번	유물 명칭 (유물번호, 청구주)	제작 시기	명문 내용
1	통화15년명 청동 발우(3610)	통화15년 (997)	統和十五年丁酉四月日 禪院彌勒鉢...
2	사내사명 청동 접시(3636)	태평15년 (1035)	太平十五年乙亥四月日 造思內寺彌勒鉢子入卜四兩一目
3	태화5년명 청동 향완(3575)	태화5년 (1205)	太和五年乙丑三月日 禪院寺良中亡者前史楊朴珍施 納香垸一入重二斤七兩納三寶印
4	사내사명 청동 향로(3597)	무오년	靑州思內寺羅堂香戊午年造
5	사내사명 청동 향로(3598)	무오년	靑州思內寺羅漢堂香戊午年造
6	사내사명 청동 향로(3599)	무오년	靑州思內寺羅漢堂香戊午年造
7	사내사명 청동 향로(3600)	무오년	靑州思內寺羅漢殿庭仲香等合香 二十八燈二十六共戊午成 匠新達
8	사내사명 청동 향완(3576)	경신년	庚申二月日戶長韓鍊弼戶正 韓德同心鑄成香垸一重一斤 五兩施納思內寺塔殿
9	사뇌사명 청동 금고(3562)	기유년	己酉年五月二十四日思惱 寺半子一口入重參拾伍斤揀 梁副戶長同正郭務大匠金先造

사뇌사 유물은 처음 발견하였을 때부터, 이 유물이 전란을 피하여 묻은 일종의 퇴장 용기일 것이라는 주장이 유력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제안된 것은 유물의 퇴장 시점이 몽골군의 침입기였을 것이라는 추정이었다. 유물 관련 보도가 처음 나가면서 여러 신문에서 “몽골 침입 때 매장 추정”(중부매일), “몽골 변란 때 사찰서 매장한 듯”(동양일보) 등의 보도 기사가 나간 것이 이러한 견해를 반영한 것이었다.⁵ 5백 점

가까운 유물의 시기가 모두 고려라는 점과 의도적인 퇴장이 분명하게 읽힌다는 점에서, 13세기 몽골전란을 퇴장의 배경으로 설정한 것은 일단 상식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몽골 침입이라고 하면 1231년(고종 18)으로부터 1259년(고종 46)까지의 범위가 상정된다. 김홍주는 몽골전란기 중 이 유물이 구체적으로 1253년(고종 40)에 묻힌 것으로 추정하였다.⁶ 대표 유물의 하나로 지목된 청동금고에 적힌 ‘기유년 5월 24일’이라는 제작 시기의 기유년을 1249년(고종 36)으로 보고, 몽골군의 침입 상황을 검토하여 연대를 설정한 것이다. 1253년 예쿠(也窟)가 지휘하는 5차 침입의 몽골군은 충주성(충주산성)을 3개월 간이나 포위 공격하였다. 방호별감 김윤후와 충주민의 용전으로 충주성은 함락을 면하고 적을 격퇴하였는데, 사뇌사 유물의 퇴장이 바로 이 시기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⁷

이에 대하여 최응천은 청동금고의 기유년을 1249년(고종 36)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하였지만, 다른 간지명 자료 청동향완의 경신년을 1260년(원종 1), 4점 청동향로의 무오년을 1258년(고종 45) 또는 1318년(충숙왕 5)으로 추정함으로써 견해차를 보여주었다. 특히 기유년 금고와 함께 출토한 ‘무문’의 청동금고에 대해서는 고려 말 또는 조선 초의 작품으로 추정하고,⁸ 5점의

4 신명희, 2014,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 명문 재검토」, 『청주 사뇌사(금속공예 II)』, 국립청주박물관, p.255의 표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5 <중부매일> 1993.10.28.; <동양일보> 1993.10.28.
 6 김홍주, 1993, 「청주 사직동 출토 사뇌사명 반자」, 『미술자료』 52, 국립중앙박물관, p.174 참조. 김홍주는 위 논문에서 유물의 추정 매장 시기를 “원이 두 달 열흘동안 치열하게 충주성을 공격했던 제4차 침입(1251) 때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하였다. 이것은 내용적으로 1253년(고종 40) 몽골의 제5차 침입을 지칭하는 것이다. 김홍주는 같은 의견을 ‘9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념 고려 공예전(1999.10.4.~10.31) 도록에서도 피력하였다(김홍주, 1999, 「사뇌사 유물의 발견 경위」, 『고려 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p.133).
 7 몽골군 5차침입과 충주항전에 대해서는, 필자가 1991, 「고려 대몽항전사 연구」, 일지사, pp.284~288; 2011, 「충주민의 대몽항전과 다인철소」, 『어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해안, pp.165~174에서 정리한 바 있다. 1253년의 이 충주성전투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의로서는 강재광, 2023, 「1253년 충주성전투 승첩과 방호별감 김윤후의 역할」, 『한국사연구』 202 및 2023년(7. 6). 충주문화원부설 충주학연구소 주최의 세미나 <충주의 대몽항쟁과 충주성 전투>; 2023년(11.23),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 · 백산학회, <고려 · 몽골전쟁 역사의 현장, 김윤후와 충주성전투> 등이 있다.
 8 “측면의 폭이 넓고 당좌구 없이 고면에 한 줄의 동심원으로 內 · 外區로만 구분하였으며 문양도 전혀 시문되지 않았다. 측면에 달린 3개의 귀도 지극히 형식적으로서 앞서의 작품과 많은 양식적 차이점을 볼 수 있어, 대체로 고려 말기 또는 조선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최응천, 1999, 「사뇌사 유물의 성격과 의의」, 『고려 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p.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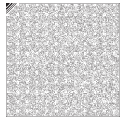


그림 1 기유년명 청동금고(3562, 지름 48.5cm, 국립청주박물관 사진).



그림 2 무오년명 향로(3597, 높이 18.5cm, 국립청주박물관 사진).



그림 3 경신년명 향완(3576, 높이 19.4cm, 국립청주박물관 사진).

청동숫가락에 대해서는 “조선전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⁹ 이러한 연대관을 근거로 한다면 사뇌사의 유물이 묻힌 것은 13세기 몽골침입과는 전혀 무관한, 14, 15세기의 일이 된다.

한편 장수진은 사뇌사 자료를 검토한 후 기유년 금고는 1249년, 무오명 청동향로는 1258년, 경신명 향완은 1260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¹⁰ 그러나 관련한 유물의 퇴장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아,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어느 시기에 유물이 퇴장되었음을 전제한 것이라 짐작될 뿐이다. 사뇌사 기년명 유물의 편년은 유물의 퇴장 시기 문제와 엮어져 있는 것이어서, 퇴장 시기를 설정하지 못하면 유물의 편년관도 힘을 받기

가 어렵다. 13세기 중반의 몽골 전란기는 유물 퇴장의 배경으로서는 상식적이지만, 무오 혹은 경신년의 청동유물의 편년을 12세기로 올려 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사뇌사 유물은 유물 발견 20년이 지난 뒤에, 소장처인 국립청주박물관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신명희는 사뇌사 유물 명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무오년을 1138년 또는 1198년, 경신년을 1200년으로 비정하였다. 기유년 금고의 연대는 종래와 같은 1249년이었지만, 무오년과 경신년을 기유년 이전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간지명 자료의 시기를 12세기로 올려본 것이다.¹¹

신명희가 사뇌사 유물의 간지 기년을 13세기 중반, 1249년까지로 설정하고 정리한 근거는 간지와 함께 적힌 ‘사내사(思內寺)’라는 절 이름 때문이다. 조성 시기가 다른 이들 청동유물에 적힌 절 이름은 ‘사내사’와 ‘사뇌사’의 두 종류이다. ‘사내사’로 기록된 것은 도합 7점이다. 그 가운데 무오년이 4점, 경신년이 1점인데, 그중 1점은 ‘태평 15년’(1035)이라는 연대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의 하안거(夏安居)와 관련한 ‘사뇌사’ 기록을 근거로,¹² ‘사내사’라는 이름이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에 의하여 이들 간지명 자료는 1198년에서 1249년 어간의 자료로서 정리되었다.

이같은 정리는 일단 사뇌사 유물이 몽골전란기에 묻힌 것일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뇌사 유물이 1253년(고종 40) 몽골의 침입 때 묻힌 것이라는 앞서 김홍주의 추론을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내사’를 12세기, ‘사뇌사’를 13세기의 절 이름으로 보는 신명희의 의견에 대해서 김정현 등은 동의하지 않았다. ‘내’가 이두문으로

9 최응천, 1999, 위의 논문, p.145.

10 장수진, 2013, 「청주 사뇌사지 출토 고려 금속공예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p.85.

11 신명희, 2014,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 명문 재검토」, 『청주 사뇌사』(금속공예 II), 국립청주박물관, pp.224~255.

12 『曹溪眞覺國師語錄』 「西原府思惱寺夏安居上堂」.

읽힐 때 ‘뇌’가 되는 것이어서 이는 다르게 쓰이는 이름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¹³ 간지명 자료에 대한 연대 해석의 견해차로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30년을 맞은 셈이다.

Ⅲ. 사뇌사 유물의 퇴장, 13세기 중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응천이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기를 14세기 또는 그 이후로 보는 것에 대하여, 신명희는 연대를 가진 사뇌사 자료의 마지막 자료를 몽골전란기인 1249년(기유)으로 설정함으로써 간지의 연대에 대한 이견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대조되는 편년관에 의하여 정리된 사뇌사 자료의 연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뇌사 간지명 유물에 대한 연대관

연번	유물 명칭 (유물번호, 청주)	연대	최응천	신명희
1	통화 15년명 발우	997년		
2	태평 15년명 접시	1035년		
3	태화 5년명 향완	1205년		
4	사내사명 청동 향로(3597)	무오년	1258년(고종 45) 또는 1318년(충숙왕 5)	1138년(인종 16) 또는 1198년(신종 1)
5	사내사명 청동 향로(3598)	무오년	1258년 또는 1318년	1138년 또는 1198년
6	사내사명 청동 향로(3599)	무오년	1258년 또는 1318년	1138년 또는 1198년
7	사내사명 청동 향로(3600)	무오년	1258년 또는 1318년	1138년 또는 1198년
8	사내사명 청동 향완(3576)	경신년	1260(원종 1)	1200(신종 3)
9	사뇌사명 청동 금고(3562)	기유년	1249(고종 36)	1249(고종 36)

최응천이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기를 늦추어보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로 판단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늬가 없는’ 작은 청동금고, 그리고 8점의 청동 순가락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신명희가 작은 청동금고를 ‘고려 전기’로 비정한 것은¹⁴ 사뇌사 자료의 14세기 편년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금고는 무문이 아니고 실제로는 얇은 당초문이 있는데, 그 제작 시기에 대해서 김정현은 ‘13세기 중반’이라 하여 기유년(1249) 금고와 연대관에 별 차이를 두지 않았다.¹⁵ 8점의 순가락은 대부분 자루 끝이 제비처럼 갈라진 연미형인데, 채해정은 1208년 경 침몰한 마도 1호선 유물에서 이미 그 예를 볼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이 자료의 14세기 이후 편년 가능성을 부정하였다.¹⁶ 2009년에 조사된 마도 1호선에서는 13점의 청동 순가락을 출수하였는데, 그중 2점이 연미형 자루 끝을 가지고 있다.¹⁷ 청동금고와 청동순가락 편년이 다른 자료에 비하여 특별히 늦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인 셈이다. 이는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기를 13세기 몽골전란기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기와 관련하여 그 시점이 가장 구체적으로 제안된 것은 몽골 침입기, 그중에서 1253년(고종 40)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몽골군의 침입시 실제로 그에 대응하여 귀중한 유물을 퇴장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다. 낙산사의 보물인 수정 염주와 여의보주(如意寶珠)는 1253년, 1254년(고종 41) 몽골군 침입으로 상황이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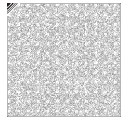
13 '사내사'의 '내'는 이두문으로는 '뇌'로 읽혔으며, 따라서 같은 절 이름이고, '思惱寺'로 적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절 이름의 의미는 '동방 고유의 절'이라 하였다. 김정현, 2009, 「청주 사뇌사 금속유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2~37; 김무림, 2003, 「한자 '內'의 국어 음운사적 고찰」, 『국어학』 41, 123~143 참조. 김수태도 '사내사'와 '사뇌사'는 같은 시기에 통용되었던 것이라고 보고, 이를 절 이름의 변화로 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수태, 2021, 「고려시대 청주 사뇌사의 성격-미륵신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5, pp.222~224.

14 신명희, 앞의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 명문 재검토」, p.20.

15 김정현, 2009, 「청주 사뇌사 금속유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78~80 참조. 금고의 문양은 “청주 흥덕사지에서 발견된 갑인명 청동금고의 내, 외구의 당초문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16 국립청주박물관, 2015, 『청주 사뇌사(금속공예 Ⅲ)』, pp.197~198.

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 마도1호선 발굴조사보고서」, pp.418~422.



위지사 양주성(襄州城)으로 옮겼는데, 성이 함락 위기에 처하자 결승(乞升)이라는 이름의 사노(寺奴)가 이를 땅에 묻었다. 1254년(고종 41) 10월 22일 성은 몽골군에게 함락되었으나 적이 물러가자 결승은 이 보주를 파내 명주도(溟州道) 감창사(監倉使)에게 바쳤다.¹⁸ 문헌에 남겨진 몽골 전란기 1254년 경의 퇴장 사례이다.¹⁹

1253년 제5차 침입의 몽골군은 10월 충주산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때 충주산성 방어는 방호별감 김윤후가 담당했는데, 전투는 70여 일을 끌었고 마침내 몽골군은 12월 충주산성을 포기하고 철수하였다. 당시 예쿠(야골)가 지휘한 몽골군은 철원, 춘천, 양평, 원주를 거쳐 충주에 이르렀다가 물러난 것이다. 이같은 진로에 비추어보면, 이때 몽골군이 청주 지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몽골군은 1254년(고종 41), 1256년(고종 43), 1258년(고종 45) 연이어 쳐들어오고 그때마다 충주를 거쳤지만, 청주에까지 침입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청주에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시기는 1254년의 일인데, 이때 몽골군은 충주를 함락하고, 인근의 진천, 괴산에 출현하였지만, 청주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²⁰ 이것이 필자가 1253년 혹은 몽골전란기 퇴장 주장을 동의하는 데 주저하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대략 1253년 이후 무인정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된 산성과 해도에의 입보책이다. 특히 1254년(고종 41)은 몽골침입 이후 그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였다. “이해에 몽병에게 사로잡힌 남녀가 무려 20만 6천 8백여 인이요, 살육된 자는 무려 헤아릴 수가 없었고, 지나가는 주군(州部)마

다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²¹는 기록이 이같은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시기에 강화도 정부는 산성과 해도에의 입보를 강력히 추진하였던 것이다.

『고려사』에는 고종 43년 8월 기록에 “장군 송길유(宋吉儒)를 보내 청주민을 섬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²² 고종 43년이라면 1256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고려사절요』에서는 당시 송길유가 추진했던 혹독한 입보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장군 송길유를 파견하여 청주민을 해도(섬)에 옮기도록 하였다. 길유는 백성들이 재물 때문에 옮기기를 꺼릴 것을 염려하여 공사재물을 모두 태워 버렸다. 이에 앞서 항(沈)은 제도(諸道)에 사자를 보내어 거민(居民)을 모두 몰아 섬으로 들어가게 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집과 전곡(錢穀)을 불태우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굶어 죽는 자가 10에 8, 9였다. (『고려사절요』 17, 고종 43년 8월)

공사(公私)의 재물을 모두 불태워버림으로써 해도 입보를 강제하는 송길유의 행위가 기본적으로 최항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은 해도입보책이 가졌던 청야전략(淸野戰略)으로서의 성격을 말해준다. 이때 청주에서의 ‘해도입보’가 실제로는 아마 주변 산성에의 ‘산성 입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사뇌사 유물의 퇴장이 이 시기(1256)의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의견을 필자는 가졌던 적이 있다.²³ 1256년이라면 몽골의 6차 침입(1255~1256) 때의 일이 되는 셈인데, 1253년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8 『삼국유사』 3, 탑상 4,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19 낙산사의 두 보주는 858년 귀국한 의상대사가 당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 하는데, 결국 강도로 옮겨졌다가 1284년 國淸寺 금탑 안에 안치되었다. 윤용혁, 2022, 「몽골전란과 삼국유사의 일연 -삼국유사를 통해서본 몽골전란」, 『한국중세사연구』 69, pp.127~129 참조.

20 윤용혁, 1991, 『고려 대몽항전사 연구』, 일지사, pp.284~288, 292~311.

21 『고려사』 24, 세가 고종 41년 12월.

22 『고려사』 24, 세가 고종 43년 8월 경진.

23 윤용혁, 2023, 「사뇌사 유물은 몽골전란 때 묻었나?」, 『충북을 다시 읽다』(충북대 제26기 박물관대학 강의자료집), p.134.

IV. 사뇌사 유물의 퇴장, 14세기 ?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기를 몽골 전란기로 설정하는 것은 일단 상식적인 선에서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1254년 혹은 1256년과 같은 1250년대로 상정할 경우, 간지명 유물의 마지막 시기는 기유년 금고의 1249년(고종 36)이 된다. 이 때문에 신명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동향로의 무오년을 12세기인 1138년(인종 16) 또는 1198년(신종 1), 청동향완의 경신년을 1200년(신종 3)으로 비정한 것이다.²⁴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정합성(整合性)을 갖기 위해서는, 이 시기 다른 여러 연호명 자료의 사례를 통하여 연호 사용 시기에 대한 객관적 배경을 확보해야 한다.

고려는 대외관계의 필요에 의해서 중국 왕조의 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1세기에는 요(916~1125)의 연호, 12세기에는 금(1115~1234)의 연호, 그리고 14세기에는 원(1271~1368)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13세기에는 대륙을 장악하고 있던 몽골과의 대결 국면으로 연호 대신 간지의 사용이 일반화 되었다. 기와에 적힌 연호의 경우 요의 연호는 대평(太平, 1021~1030), 중희(重熙) 14년(1045), 청녕(淸寧) 병신(丙申, 1056), 대안(大安) 5년(1089), 건통(乾統) 3년(1103), 천경(天慶) 3년(1113)이 있고, 금의 연호는 대정(大定) 12년(1172), 명창(明昌) 3년(1192)의 예가 있다.²⁵ 이러한 연호 사용의 경향성에 비추어 본다면, 물품의 종류는 다르지만 청동향로의 '무오년'을 1138년(인종 16)으로 비정하는 것은 일단 무리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대금 사대 관계가 성립한 1126년(인종 4) 이후라는 점에서 금의 연호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시기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 비교를 위하여 청동의 금고,

표 3 청동유물(향완, 금고, 범종)에 기록된 금의 연호

연번	명칭	연호기년	연대	종별
1-1	백월암 향완	대정 4년	의종 18(1164)	청동향완
1-2	표총사 함은향완	대정 17년	명종 7 (1177)	
1-3	금산사 향완	대정 18년	명종 8 (1178)	
1-4	태화 사년명 향완	태화 4년	신종 7 (1204)	
1-5	건봉사 향완	정우 2년	고종 1 (1214)	
1-6	정우구년명 은사향완	정우 9년	고종 8 (1221)	
2-1	황통삼년명 덕산사금구	황통 3년	인종 21(1143)	청동금고
2-2	정풍오년명 양등사반자	정풍 5년	의종 14(1160)	
2-3	대정구년명 금구	대정 9년	의종 23(1169)	
2-4	대정십구년명 반자	대정 19년	명종 9 (1179)	
2-5	명창이년명 미륵원반자	명창 2년	명종 21(1191)	
2-6	승안육년명 경선사금고	승안 6년	신종 4 (1201)	
2-7	태화이년명 반자	태화 2년	신종 5 (1202)	
2-8	태화육년명 덕주사금구	태화 6년	희종 2 (1206)	
2-9	태화칠년명 자복사반자	태화 7년	희종 3 (1207)	
2-10	송경이년 고령사반자	송경 2년	강종 2 (1213)	
2-11	정우이년명 경선사금구명	정우 2년	고종 1 (1214)	
2-12	정우사년명 반자	정우 4년	고종 3 (1216)	
2-13	정우오년명 봉업사반자	정우 5년	고종 4 (1217)	
2-14	정우육년명 청동반자	정우 6년	고종 5 (1218)	
2-15	청우십년명 취암사반자	정우10년	고종 9 (1222)	
2-16	정우십이년명 이의사반자	정우12년	고종 11(1224)	
3-1	정풍이년명 소종	정풍 2년	의종 11(1157)	범종
3-2	덕흥사 종	명창 7년	명종 26(1196)	
3-3	천정사 종	승안 6년	신종 4 (1201)	
3-4	선경원 종	태화 6년	희종 2 (1206)	
3-5	봉안사 종	정우 4년	고종 3 (1216)	
3-6	청림사 종	정우10년	고종 9 (1222)	
3-7	월봉사 종	정우11년	고종 10(1223)	
3-8	정우십삼년명 동종	정우13년	고종 12(1225)	

향로 등 금속유물에 기록된 금 연호의 사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²⁶

금은 몽골군의 고려 침입 초기인 1234년에 멸망하였는데, 위의 자료에 의하면 향완은 1221년, 금고는 1224년, 범종은 1225년까지 금의 연호 정우(貞祐)를 기년의 연호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은 정우(1213~1216) 이후 흥정(1217~1221), 원광(1222~1223), 정대(1224~1231) 등으로 연호가 바뀌었다. 따라서 정우 6년(1218)은 흥정 2년, 정우 9년(1221)

24 신명희, 2014,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 명문 재검토」, 『청주 사뇌사(금속공예 II)』, 국립청주박물관, pp.224~255.

25 윤용혁, 2020, 「오키나와 고려기와의 심벌초」, 『한국과 오키나와 -초기 교류사연구』, 서경문화사, p.21.

26 황수영 편저, 1976, 『한국금석유물』, 일지사 자료에 의거함.



은 흥정 5년, 정우 10년(1222)은 원광 1년, 정우 11년(1223)은 원광 2년, 정우 12년(1224)은 정대 1년, 정우 13년(1225)은 정대 2년에 각각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호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 시기 이미 금과의 외교가 침체하여 있었고, 금의 연호가 금 멸망 직전인 1220년대 중반까지 관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신명희는 사뇌사 청동 향로 무오년을 1138년 또는 1198년, 청동 향완 경신년을 1200년으로 비정한 바 있다. 그런데 위의 표에 의하면 1198년은 금 승안(承安) 3년이고, 1200년은 승안 5년에 해당한다. 승안 이후 태화, 대안, 승경, 정우 등 1220년대에 이르기까지 금의 연호는 향완, 금고, 범종 등 불구의 기년 표기에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에 대한 사대 관계가 지속되는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간지 기년의 무오년 향로를 1138년 또는 1198년, 경신년 향완을 1200년으로 비정한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또 다른 견해, 기유년 금고는 1249년, 무오명 청동향로는 1258년, 경신명 향완은 1260년이라는 최웅천, 장수진의 견해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뇌사 유물의 퇴장은 1260년 이후, 대략 13세기 말이나 이후 14세기의 시점에서 재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1234년 금 멸망 후, 원이 성립하고 고려가 원에 복속함에 따라 고려는 원의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고려 청동유물(향완, 금고, 범종)에서 원의 연호 기록이 있는 것은 범종이 지원 31년(1294, 충렬왕 20), 향완은 지정 2년(1342, 충혜왕 3)부터, 금고는 지치 2년(1322, 충숙왕 9) 등이다. 무인정권의 붕괴와 개경 환도가 이루어진 1270년 이후로는 점차 원의 연호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간지가 불구(佛具) 자료에 공

식 기년의 표기로 사용된 시기는 주로 1230년대로부터 1270년대까지의 약 50년 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지명으로 표시된 청동 불구자료의 연대를 정리하면, 향완은 병술(1226), 무자(1228), 신묘(1231), 경술(1250), 병진(1256), 무오(1258), 금고는 을유(1225), 병술(1226), 갑오(1234), 을사(1245), 기유(1249), 경술(1250), 임자(1252), 기미(1259), 경신(1260), 병인(1266), 기사(1269), 범종은 기축(1229), 계사(1233), 갑오(1234), 무술(1238), 기해(1239), 신축(1241), 갑진(1244), 을사(1245), 기유(1249), 신해(1251), 기미(1259) 을축(1265), 계유(1273), 정축(1277), 무인(1278) 등으로 편년이 가능해진다.²⁷

청주 출토의 금구 가운데는 사뇌사의 것과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있다. 흥덕사지 출토 ‘갑인명’ 청동금고, 청주 운천동사지 출토 ‘기사명’ 청동금고 등이 그것이다. 갑인명은 1194년 혹은 1254년, 기사명은 ‘1269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²⁸ 사뇌사 유물중 기유년(1249) 금고, 무오년(1258) 향로, 경신년(1260) 향완이라는 간지명 자료에 대한 앞의 연대 정리는 이같은 일반적 추이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뇌사 자료의 퇴장은 1260년 이후, 몽골 침입이 끝난 13세기 후반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사뇌사에서 퇴장이 14세기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뇌사가 몽골 침입 이후인 13세기 후반 내지 14세기 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이에 부합하는 점이 있다. 김수태는 ‘사내사’와 ‘사뇌사’는 서로 통용되었고 또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라 하여, 절 이름을 근거로 한 신명희의 편년에 대해서는 회의론을 표시하였다. 대신 1349년 청주목 관아 이두문서에 사뇌사의 이름이 보이지 않음을 주목하였다. 보살사

27 이러한 기준에서의 편년이 다소 모호한 경우도 없지 않다. 정축, 임오의 금고가 그 예이다.

28 국립청주박물관, 1999, 『고려 공예전』, pp.16~17

(菩薩寺), 응천사(應天寺), 남선원(南禪院), 화림사(化林寺), 구산사(龜山寺) 등 여러 절 이름이 보이는데도, 청주의 유력한 절이었을 사뇌사, 용두사 등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절이 1349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폐사 상태였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²⁹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뇌사, 용두사의 폐사가 몽골 전란 이후의 시기, 대략 1300년을 전후한 시점의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이 되는 셈이다. 그리고 몽골전란 종식 이후에 사뇌사와 용두사의 폐사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사뇌사 유물의 퇴장 배경과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사뇌사 유물의 퇴장, 1291년

사뇌사 유물의 퇴장을 몽골 전란이 끝난 뒤인 13세기 후반 이후(혹은 14세기)로 볼 경우, 문제는 퇴장이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14세기에는 왜구의 침입이 있는데 청주의 경우는 1378년(우왕 4) 6월, 1388년(우왕 14) 8월 왜구의 침입이 있었고, 같은 해 10월 옥천, 1380년(우왕 6) 7월 옥천, 8월 황간, 1383년(우왕 9) 8월 괴산과 옥천, 1384년(우왕 10) 8월 영동, 1388년(우왕 14) 옥천, 영동 등 청주 인근 지역에서의 침입 기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왜구 침입은 간헐적인 침입 사건이어서 몽골 전란 때와는 상황이 달랐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1349년 청주목 관아이두문서를 근거로 사뇌사가 그 이전에 폐사되었다고 한다면, 14세기 후반에 일어난 왜구 침입과 14세기 전반의 사뇌사를 연관 짓기는 어렵게 된다.

그런데 청주 사뇌사의 폐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카단(哈丹)의 침입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용두사

지 당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용두사와 함께 사뇌사가 카단의 침입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기록 속에서 청주까지 치달은 외적은 합단이 유력하다. 1287년(충렬왕 13) 원의 반란 세력인 합단이 진압을 피해 고려로 들이닥쳤다. (중략) 이때 청주의 사찰은 거의 불타지 않았을까. 사뇌사는 물론 용두사마저.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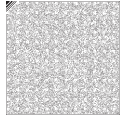
카단의 고려 침입은 1287년이 아니고 1290년(충렬왕 17)에서 1291년(충렬왕 18)의 일이었지만, 사뇌사의 피해가 이때의 일이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추론이다. 1290년(충렬왕 16) 원의 반적(叛賊) 카단의 침입은 이듬해 1291년 세종시(연기현) 지역 일대를 격렬한 전투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사건이다. 카단은 몽골 동방제왕(東方諸王, 칭기스칸 동생 일족)의 하나인 카치운(哈赤溫)의 후손으로, 1287년 쿠빌라이에 대항하는 나얀(乃顔)의 반란에 호응한 인물이다. 나얀이 패사한 후 카단은 잔여세력을 이끌고 3년간 요동 각지를 휩쓸다가 고려에까지 침입한 것이었다.³¹

카단이 원군의 공격을 피하여 고려 동북 변경에 침입을 개시한 것은 1290년 11월의 일이었다. 카단이 동북 변경으로 접근하자 위협을 느낀 정부는 강화도에의 피란을 준비하였고, 지방 주군(州郡)들에 대해서는 산성 및 해도(海島)에 입보하도록 조치하였다. 12월, 수 만에 이르는 카단 세력은 화주(영흥), 등주(안변)를 함락하여 남진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고려정부는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만호(萬戶) 인후(印侯)를 현지로 내보내는 한편 충렬왕은 병란을 피하여 강화도로 들어갔다. 강화천도를 방불하는 충렬왕의 피란은 당시 고려가 카단의 침입에 얼마나 긴장하고 심각한 상황으

29 김수태, 2021, 「고려시대 청주 사뇌사의 성격-미륵신앙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5, pp.222~224, 227~228.

30 "합단이 충주를 거쳐 청주로 물러온다는 소식은 공포 자체였을 것이다. 피난을 떠나고 산성에 올랐을 것이다. 이때 사뇌사의 승려들은 급한대로 소중한 제기들을 땅에 묻었을 것이다. 7백 여 년이 지나 발견된 것은 묻은 이가 목숨을 잃었던 연유일 것이다." (강민식, 2015, 「무심천변에 쌓은 음성. 당간을 뜻대 삼다」, 『준풍에 올린 뜻대』, 직지 p.20)

31 카단의 출신과 요동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고명수, 2020, 「몽골 제왕 카단(哈丹)의 출신과 행적」, 『역사와 담론』 96; 류병재, 2021, 「카단의 고려 침입 전후 상황과 고려·대원올로스 연합군의 대응」, 『몽골학』 64 참조.



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듬해 1291년(충렬왕 18) 1월에 카단군은 철령을 넘어 양근성(경기도 양평군)을 함락하였다. 이후 카단군의 침입과정에서의 가장 큰 싸움은 원주전투와 연기전투였다. 전자는 중도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던 사건이며, 후자 연기전투는 최종적으로 적을 궤멸시켰던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근성(양평군) 함락 이후, 원주에서의 전투는 1291년(충렬왕 17) 정월의 일이다. 이무렵 원주에는 방어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방호별감(防護別監) 복규(卜奎)가 파견되어 치악성(雉岳城)에 입보하여 있었고, 원주민들 중에서 모집하여 편성한 별초군(別抄軍)은 지역 선비인 향공진사(鄉貢進士) 원충갑(元冲甲)이 지휘하여 카단을 공격하였다. 카단군은 이들에 의하여 원주에서 패퇴하였다.³² 이후 카단은 충주에서 다시 패하자 진로를 충주에서 서쪽으로 바꾸어 5월 1일 연기현에 이른 것이다.

연기현(燕岐縣)에서의 전투는 1291년(충렬왕 17) 5월 2일 새벽에 개시되었다. 전날 목천(천안)에 있던 고려의 3군과 원 쉼투칸(薛鬪干)의 군은 적이 연기현에 주둔중이라는 정보에 따라 밤을 이용해 강행군을 하였고, 다음날 밝을 무렵 세종시 연서면(燕西面)의 정좌산(正左山)에 주둔하고 있던 카단군을 포위,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것은 카단에 대해서 ‘야전(夜戰)’을 하라는 쿠빌라이의 조언³³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포위 공격에 혼란에 빠진 카단군은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아군은 달아나는 적을 추격, 금강까지 이르렀는데 “죽어 넘어진 시체가 30여 리에 이어졌고 익사한 자도 매우 많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카단

군은 전력(戰力)을 크게 상실하였는데 이것이 연기현에서의 1차 승전이다. 도망하던 카단군의 상당수는 금강에 의해 후퇴로가 차단되자 현재 세종 신도시에 위치한 원수산을 근거로 최후 저항전을 벌였다. 정좌산이 연기전투의 개시 지점이며 연합군이 확실한 승리(勝機)를 잡은 곳이었다고 한다면, 원수산은 적을 다수 살상하면서 전투를 종료시킨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⁴

카단과 로데(路的) 부자가 이끈 2천의 정예기병은 포위를 뚫고 도주하였다. 연기현에 늦게 도착한 관계로 승첩에 참여하지 못한 원의 나이만다이(那蠻歹)는 도망간 카단을 추격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쉼투칸(薛鬪干)이 이를 거절하였다. 5월 27일, 연합군은 개경으로 개선하였으며, 다음날로 원군은 모두 고려로부터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상이 1290년 11월부터 이듬해 1291년 5월에 이르는 카단군의 대략적 고려 침입의 과정이었다. 문제는 충주 이후 연기현에 이르는 과정에서 카단군이 청주를 경유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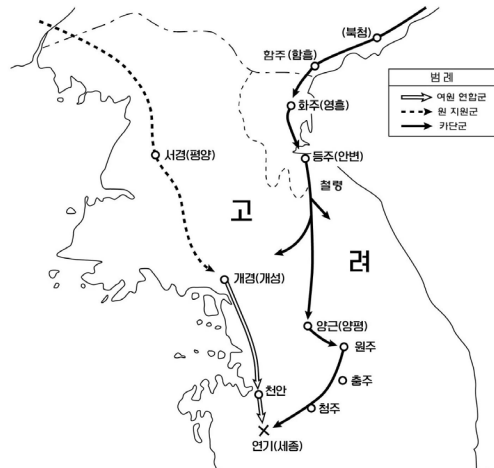


그림 4 1291년 카단군의 침입도.³⁵

32 원주에서의 전투에 대해서는 신호철, 1998, 「합단적의 침입과 원충갑의 영원성(치악성)승첩」, 『원주 영원산성 해미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이인재, 2000, 「1291년 카단(哈丹)의 치악성 침입과 원충갑의 항전」, 『한국사상과 문화』, 7; 주재혁, 2000, 「쿠빌라이칸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카단宗王軍의 항전과 고려 영원산성 토벌전」, 『강원인문논총』, 8.

33 『고려사』, 30, 세가 충렬왕 17년 2월 정해.

34 카단 침입에 대한 방어전 및 연기 전투의 경과에 대해서는 공주대박물관, 1994, 『연기대첩 연구』; 윤용혁, 2009, 「원 카단(합단)적의 침입과 연기대첩」, 『충청 역사문화 연구』, 서경문화사; 김진수, 2010, 「13세기 합단군의 침공에 대한 고려군의 대응」, 『군사』, 77 참조.

3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동국병감』, p.368의 지도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충주에서 카단을 격퇴한 것은 1291년 4월 충주산성에서의 일이다.³⁶ 카단이 원주에서 충주로 남하하자 충주민들은 몽골군 침입 때 거점으로 활용하였던 충주산성에 입보하여 이에 대처하였던 것이다. “충주산성 별감이 적을 격파하고 적의 수급 40개를 바쳤다”는 것이 4월 9일(병자)로 되어 있다.³⁷ 실제 충주산성 전투는 4월 초순, 원주에서 충주로 이동한 것이 3월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후 카단이 연기현 정좌산(세종시 연서면 쌍전리)에 이른 것은 5월 1일의 일이었다. 원주전투 이후 카단은 충주에서 머물러 전투를 치르고 연기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주를 거쳤던 것이 4월이었던 셈이다.

원주에서 충주로 이동하는 진로는 적이 경상도 방면으로의 남하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주산성에서 막혀 카단이 서쪽으로 진로를 바꿈으로써 청주에 이른 것은 처음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청주민의 피란 입보는 이 때문에 다소 황급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카단 침입에 대비한 고려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산성에의 입보였다. 양평에서는 양근성(함공성), 원주에서는 치악성(원주산성), 충주에서는 충주산성으로 각각 입보하였고, 이들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방호별감에 의하여 지휘되었다. 청주의 경우도 청주 및 주변의 군현민들이 청주산성에 입보하여 카단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다.

카단 침입 당시 청주와 주변 군현민들이 청주산성에 입보하였던 사실은 다음 기록에서 확인된다.

(충렬왕 18년) 4월, 왕이 명을 내려 이르기를 “경상도 관성(管城), 안읍(安邑), 이산(利山) 등의 현에서는 얼마 전 청주산성에서 적(賊)을 피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중도(中道)와 함께 모두 공부(貢賦)를 면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80, 식화지 3, 진흥)³⁸

충렬왕 18년(1292)에 내려진 세금 감면에 대한 조치인데, 그 대상이 청주산성에서 ‘적(賊)을 피하여’ 입보한 관성(管城, 옥천), 안읍(安邑), 이산(利山) 등 옥천 지역민들에 대한 것이었다.³⁹ 여기에서의 ‘적(賊)’이 전년(1291) 고려에 침입한 카단적(哈丹賊)을 지칭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것은 카단적 침입기에 청주와 그 주변 군현민들이 청주산성에 입보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⁴⁰

충주에서 패전한 카단군이 연기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진로상 청주 경유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카단군은 현지에서 식량과 생활 용품 등 모든 필요한 물자를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이동 과정에서 심각한 약탈을 수반하였다. 카단군이 동북 변경 화주, 등주에 침입하였을 때, “사람을 죽여 양식으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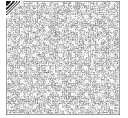
36 카단이 격퇴된 충주산성은 1253년 김윤후가 예쿠(也窟)의 몽골군을 물리쳤던 현장과 동일한 곳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위치는 잘 알 수 없다. 1253년 충주산성의 현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남산성, 충주읍성, 덕주산성, 대림산성 등 여러 의견이 논란되었고, 최근에는 충주 계족산성이 제안되는 등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백종오, 2023, 「고려·몽골전쟁기 충주성(충주산성)의 신지건」, 『고려·몽골전쟁 역사의 현장』, 김윤후와 충주성전투(세미나자료집), 국립한국교통대학교박물관·백산학회 참조.

37 『고려사』 30, 세가 충렬왕 17년 4월 병자.

38 “四月下旨 慶尙道管城·安邑·利山等縣 頃因避賊 于淸州山城 民失農業 宜與中道 並蠲貢賦” 『고려사절요』 21, 충렬왕 18년 4월에서는, “以管城·安邑·利山等縣 因賊失業 並蠲貢賦”라 하였다.

39 차용결은 안읍현을 옥천군 안내면과 안남면, 이산현을 옥천군 이원면이라 하였다. 차용결, 2016, 「고려말 1290년의 청주산성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국축성사 연구』 2, 진인진, p.462.

40 청주민들의 입보처였던 청주산성이 현재의 어느 산성을 지칭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차용결은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소재 미륵산성을 ‘청주산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목한 바 있지만(차용결, 위의 논문, pp.466-467), ‘청주산성’은 아무래도 청주목 경내에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한편 괴산 미륵산성에 대해서는 노병식, 2009, 「고려 괴산 미륵산성의 구조와 성격」, 『한국성곽학보』 16 및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6, 『괴산 미륵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미륵산성:서문지주변 발굴조사보고서』 등의 조사 자료가 있다.



였으며 부녀자들을 윤간한 다음 포(脯)를 떼다”⁴¹고 하였으며, 이때 적들이 몹시 굶주렸으므로 고려군이 버리고 간 양곡을 여러날 진탕 먹고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⁴² 양근에서는 민간인을 포로로 잡아갔고, 원주에서는 운반중이던 녹봉미를 탈취하였다.

충주 패전 이후 경유하는 청주는 인구가 밀집한 중부의 거점도시로서 약탈이 가능한 적절한 대상이었다. 이때 청주에서도 산성에의 입보가 급하게 이루어졌던 사정은 앞에서 확인된 것이지만, 실제 카단군의 청주 경유 관련 기록이 원측 기록에 남겨져 있다. “지원 28년(1291) 2월에 홍중희(洪重禧)가 평장 쉼투칸을 따라 고려 청주(靑州)에 이르렀다. 5월, 카단과 8일간 전투하고 또 싸워서 그를 대패시켰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⁴³ 여기에는 카단의 청주 침입이 1291년 2월의 일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바로 뒤이어 연기현에서의 전투가 5월로 명기되어 있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청주에의 침입은 4월의 일이었을 것이다.⁴⁴



그림 5 사뇌사 무오년명 향로에 새겨진 ‘靑州(청주)’⁴⁵.

요컨대 5월 1일 연기현 이룬 카단의 군은 충주 이후 청주를 약탈하며 경유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청주에서 500점에 가까운 많은 양의 사뇌사의 유물이 묻힌 것은 바로 1291년 4월 카단군을 피해서 이루어진 긴급 조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난이 진정되면 물품을 매납했던 사람들이 돌아와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지만, 사뇌사의 사람들은 카단적의 피해를 입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VI. 맺는말

청주 사뇌사 유물은 유물의 양이나 고려 청동 기물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아니라, 제작 시기에 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물의 퇴장된 시기에 대해서는 13세기 중반, 13세기 말, 14세기 초 등 여러 견해가 엇갈린 상태에서 견해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사뇌사 유물은 그 자료의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본고는 논란이 많은 청주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기를 카단의 고려 침입이 진행중이었던 1291년 4월의 일로 추정하였다. 쿠빌라이의 원에 대항한 일종의 반적(叛賊) 집단인 카단군은 요동을 비롯한 동북 지역 일대를 횡행하던 끝에 1290년(충렬왕 16) 11월 고려의 동북 변경으로 침입, 남하하였다. 이듬해 1291년 카단군은 남하 과정에서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왕이 강화도로 피란하고 각지에 산성 방호별감을 파견하는 등 당시 사정은 몽골군 침입 때의 상황을 방불하는 것이었다. 카단이 궤멸되는 연기의

41 『고려사』 30, 세가 충렬왕 16년 12월.

42 『고려사절요』 21, 충렬왕 17년 정월.

43 “(至元)二十八年二月 從平章薛闡干 至高麗靑州. 五月 與哈丹戰八日 又戰 大敗之”(『원사』 154, 열전 41 홍중희).

44 위의 『원사』 기록에서는 청주를 ‘靑州’로 기록하고 있는데, 靑州는 종종 靑州와도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것 같다. 사뇌사 유물중 무오년명 청동향로(3597-3600)에서도 “靑州思內寺羅漢堂香戊午年造”라 하여 청주를 ‘靑州’라 새긴 것이 이를 말해준다.

45 국립청주박물관, 2014, 『청주 사뇌사』(금속공예 II), p.231, p.236의 사진.

현에서의 마지막 전투에 대하여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연기대첩’이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1997년 연기군(세종시)에서는 연기대첩 기념비를 건립하고 ‘연기대첩제’라는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문제의 카단 군은 1291년 1월에 양평과 원주, 4월 충주를 거쳤으며, 5월 1일 연기현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 무렵 청주와 그 주변 사람들은 청주산성으로 피란 입보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충주에서 연기에 이르는 중도에 카단적이 실제 충주를 거치게 되었다는 점을 『원사』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뇌사의 폐사 및 유물의 퇴장 배경이 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사뇌사 유물의 퇴장 시점을 카단적 침입이 진행중이던 1291년으로 설정하게 되면, 그동안 유물에 대한 편년관과 기년 자료의 설정이 상충함으로써 빚어진 모순을 해결하고, 무오년, 경신년, 기유년 등 간지명 유물의 제작 연대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유년 금고 1249년, 무오년 향로 1258년, 경신년 향완 1260년 등이 그것이다. 이 연대는 결과적으로 장수진이 기왕에 비정했던 연대와 같은 것이다.⁴⁶

46 장수진, 2013, 「청주 사뇌사지 출토 고려 금속공예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p.85. 다만 장수진의 경우 유물의 퇴장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결론의 신빙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 공주대 박물관, 1994, 『연기대첩 연구』.
- 국립청주박물관, 1999, 『고려 공예전』.
- 국립청주박물관, 2014, 2015,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Ⅱ, Ⅲ.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백산학회, 2023, 『고려·몽골전쟁 역사의 현장, 김윤후와 충주성전투』(세미나 발표집).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 마도1호선 발굴조사보고서』.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동국병감』.
- 윤용혁, 1991, 『고려 대몽항전사 연구』, 일지사.
- 윤용혁, 2009, 『충청 역사문화 연구』, 서경문화사.
- 윤용혁, 2011,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해안.
- 윤용혁, 2020, 『한국과 오키나와 -초기 교류사연구』, 서경문화사.
- 차용걸, 2016, 『한국 축성사 연구』 2, 진인진.
-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6, 『괴산 미륵산성 지표조사보고서』.
- 충주문화원부설 충주학연구소, 2023, 『충주의 대몽항쟁과 충주성 전투』(세미나 발표집).
-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3, 『미륵산성 서문지주변 발굴조사보고서』.
- 황수영 편저, 1976, 『한국금석유물』, 일지사.
- 강민식, 2015, 「무심천변에 쌓은 읍성, 당간을 뚫대 삼다, 『준풍에 올린 뚫대』, 직지.
- 강재광, 2023, 「1253년 충주성전투 승첩과 방호별감 김윤후의 역할」, 『한국사연구』 202.
- 고명수, 2020, 「몽골 제왕 카단(哈丹)의 출신과 행적」, 『역사와 담론』 96.
- 김무림, 2003, 「한자 '內'의 국어 음운사적 고찰」, 『국어학』 41.
- 김수태, 2021, 「고려시대 청주 사뇌사의 성격-미륵산성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65.
- 김정현, 2009, 「청주 사뇌사 금속유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수, 2010, 「13세기 합단군의 침공에 대한 고려군의 대응」, 『군사』 77.
- 김홍주, 1993, 「청주 사직동 출토 사뇌사명 반자」, 『미술자료』 52, 국립중앙박물관.
- 김홍주, 1999, 「사뇌사 유물의 발견 경위」, 『고려 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 류병재, 2021, 「카단의 고려 침입 전후 상황과 고려·대원올로스 연합군의 대응」, 『몽골학』 64.
- 노병식, 2009, 「고려 괴산 미륵산성의 구조와 성격」, 『한국성곽학보』 16.
- 신명희, 2014,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품 명문 재검토」, 『청주 사뇌사』(금속공예 Ⅱ), 국립청주박물관.
- 신호철, 1998, 「합단적의 침입과 원총감의 영원성(치약성)승첩」, 『원주 영원산성 해미산성 지표조사보고서』.
- 윤용혁, 2022, 「몽골전란과 삼국유사의 일연 -삼국유사를 통해서본 몽골전란」, 『한국중세사연구』 69.
- 이인재, 2000, 「1291년 카단(哈丹)의 치약성 침입과 원총감의 항전」, 『한국사상과 문화』 7.
- 장수진, 2013, 「청주 사뇌사지 출토 고려 금속공예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주채혁, 2000, 「쿠빌라이칸의 중앙집권화에 대한 카단宗王軍의 항전과 고려 영원산성 토벌전」, 『강원인문논총』 8.
- 최응천, 1999, 「사뇌사 유물의 성격과 의의」, 『고려 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 최응천, 2019, 「한국 불교 퇴장유물의 성격을 성격과 寧國寺(道峯書院) 출토품의 특징」, 『강좌미술사』 52.

A Review of the Time Cheongju Sanesa Buddhist Temple Relics Were Hoarded

YOON Yonghyouck Emeritus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hyuk@kongju.ac.kr

Abstract

In 1993, a large number of relics was found in Cheongju Sanesa Buddhist Temple. They show superiority as bronze-based products, and are especially important in since they provide much information about the time of their creation. However, there are many opinions about the time they were hoarded: in the middle of the 13th century, late in the 13th century, early in the 14th century, etc.

This study estimates the time they were hoarded to be some time in April 1291 during the invasion of Kādīn (哈丹) in the Yuan Dynasty. Kādīn's troops invaded the Goryeo Dynasty, then went through Yangpyeong and Wonju in January 1291 and appeared in Yeongi-hyeon on May 1 of that year. Based on records, this study verified that the troops passed through Cheongju on their way from Chungju to Yeongi-hyeon (currently Sejong-si) and pointed out that the invasion route of the troops was the background for the hoarding of Sanesa relics.

The estimation that the Sanesa relics were hoarded in 1291 when Kādīn's invasion was going on makes it possible to reasonably clear up the era of the relics in which the Heavenly Stems called gānzhi (干支) Muo (戊午), Gyeongshin (庚申), Giyu(己酉) etc. were written. That is, Giyu Geumgo is presumed to be the year 1249, Muo Hyangro 1258, Gyeongshin Hyangwan 1260, etc.

Keywords Sanesa Buddhist Temple, Hoarding Relics, Invasion of Kādīn, Cheongju, National Cheongju Museum

Received 2023. 12. 11. | Revised 2024. 1. 29. | Accepted 2024. 2. 14.

